



신불 이재민에 500만원 전달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은 4월24일 SBS를 방문 강인도 산불 이재민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경기도 청계사 주지에

종상 불교사 부주지는 최근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의 말사인 청계사 주지에 겸임했다.

이산사업연 회장에 취임

만성 아산 수암사 주지는 1일 온양제일호텔 특별법당에서 제4대 아산사업연합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만성스님은 "임기내 아산불교회관 건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아산지역 불교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유마정사 건립 위한 불미전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은 6일~11일까지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11층 롯데화랑에서 '유마정사 건립을 위한 불교미술 전시회'를 연다.

사무실 개원 점인식

김선대 부산불교신도회장은 4월24일 부산불교회관 5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사무실 개원 및 불불잡안법회를 봉행했다.

동국문학상 시상식

문호처 동국문학인회장은 4월27일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제14회 동국문학상 시상식 및 동국시집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동국문학상은 시인 문정희 씨가 받았다.

백악예원서 '퇴치동인전'

조향숙 화가는 3일까지 서울 관훈동 백악예원 화랑에서 열리는 제22회 '퇴치동인전'에 참가. 달마상 등 최근작들을 선보인다. (02)734-4205

과천시인 대상 고전강독

박동춘 과천시당 훈장(전통사 진수자)은 오는 7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시청각 교육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전강독을 한다.

자선회화전 '풍경소리'

박영순 명성여고 미술교사는 3일부터 9일까지 경인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부처님 오신날 기념 자선회화전 '풍경소리'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의 수익금은 강원산불 피해사찰을 비롯 불우이웃 성금으로 전달된다.



'E-메일·채팅 등 사이버 상담'

불교상담개발원 초대원장 이근후 박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이버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22일 불교상담개발원 창립법회에서 초대원장으로 추대된 이근후 교수(이화여대 의대 신경정신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인터넷 상담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게시판 상담, 이메일 상담, 채팅 상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세계 심리학계와 의료계의 정신치료를 마음으로 치료하는 불교의 상담교리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며 "한국불교의 상담개발원 창립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 이론을 정립하여 새로운 불교포교의 초석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상담요원 훈련교육 과정을 국제 수준에 맞춰 실시하여 교육수준을 높이고, 재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근후 원장은 한국석불문화연구원, 회장, 한국정신과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최근 청소년 성(性) 상담

꽃 장엄한 탑



세계 꽃의 향연인 '2000 고양 세계 꽃박람회'가 4월26일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에서 개막식을 갖고 12일간 꽃 잔치에 들어갔다. 이날 일산 호수공원은 형형색색의 꽃과 각종 불거리들로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꽃으로 만든 석가탑, 광화문, 거북선 등이 눈길을 끌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서돈각 박사 '상사법학...' 헌정식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 관순 송수기념 논총(상사법학(商事法學)에의 초대) 헌정식이 4월27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칠보사 조실 석주 스님, 조계종 총회위원장 법등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스님, 노태우 전대통령, 박철언 자민련불자회 회장 등 2백 여명이 참석했다. 논총에는 법학관련 논문 34편이 실려 있다.



천태종 관문사 성보전시관 개관식

천태종 서울 관문사 성보전시관이 4월 27일 개관식을 거행했다. 관문사 3층 40여평 규모의 성보전시관에는 삼국시대부터 최근까지의 불교관련 유물 8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27일 열린 개관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교무부장 춘광스님과 전 동국대 총장 황수영 박사, 동국대 문명대 장홍식 김성현 교수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전남 불교합창예술제

부처님오신날 맞이 불교음악의 향연 '2000 광주·전남 불교합창예술제'가 4월23일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예술제에는 중심사합창단, 백양사합창단 등 지역합창단이 참가했다. 특히 광주전남 보리살타연합창단이 팔상성도를 표현한 창작곡 '부다'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도심사 삼존불 점안

경북 봉화 도심사(주지 보해)는 4월22일 조계종 종정 서암 스님을 증명법사로 삼존불 점안식을 개최했다. 서암 스님은 "불자들이 참된 생활을 하고 남을 도울 때 남북통일도 다가온다"면서 불자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보림사 대적광전 낙성

전남 장흥 보림사(주지 현광)는 4월23일 국보 제117호 철조보리자나불좌상 개금식 및 삼존불 4대 협시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대적광전(54평) 준공식 및 선방(54평) 기공식도 겸했다.

억울한 수용생활 6년 찬드라 경불련·네팔모임서 환영회



"한국에서 겪은 악몽을 함께 잊지 못할 겁니다." 경불련과 네팔불자모임 주최로 찬드라 쿠마리 구릉(40) 씨의 퇴원 환영회가 열린 4월23일 서울 미아6동 '자비의 집'. 찬드라 씨는 입을 꼭 다문 채 다소 격양된 표정이었다. 찬드라씨는 한국말이 서름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행려병자로 몰려 무려 6년을 정신병원에 수용됐다. 최근 퇴원한 네팔인. 이날 모인 네팔 불자들도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겪어야 했던 인권유린에 대한 분노보다 다시 만난 사실을 기뻐했다. 가칭 '찬드라를 돕는 모임'을 꾸려 6년간 행방을 추적해온 탐 하리 구릉(제한네팔공동체 회장) 씨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한국사람을) 미워해 본 적은 없다"며 "모두가 고마운 사람들"이란 말로 찬드라 씨를 찾는데 도움을 준 한국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찬드라 씨의 퇴원 환영회와 귀국비용 모금을 겸한 이날 행사에는 네팔공동체와 네팔불자모임 소속 네팔인 50여명, 네팔에서 온 찬드라 씨의 아버지 람 프라사드 구릉, 여동생 인드라 구릉, 사촌오빠 때산 구릉 씨 등이 참석했다. 찬드라 씨는 현재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02)3147-2600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연꽃피워 어둠 밝혔으면...'

'꽃꽃이' 전시회 갖는 신재선 보살



"꽃으로 부처님 말씀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수승한 가피는 없습니다." 5~6일 양일간 부산 롯데호텔 2층 에머랄드룸에서 '꽃꽃이' 전시회 '연꽃등'을 여는 신재선 씨는 이번 전시회에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받은 법명이다. 법명에 대해 신씨는 "연꽃에 연꽃을 피워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기쁨을 주라는 뜻으로 새기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가 그 시작이다"고 전시회 여는 뜻을 털어놨다. 신 씨는 '꽃꽃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본래 원만구족한 아름다움을 갖춘 존재라는 것을 깨달길 항상 바란다. 이는 그만의 갖고 있는 꽃꽃이 철학이기도 하다. "눈으로 보는 꽃꽃이를 보는 것이 아니다. 꽃속에 담긴 진리를 직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 씨는 "경전을 부지런히 읽고 되새겨 불법의 정수를 꽃으로 형상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불자 대장 2명 탄생 '화제'

이종욱·김판규 장군 소장 진급자도 3명

최근 실시된 군 장성 정기인사에서 대장 2명, 소장 3명이 불자로 밝혀졌다. 한미연합사부 부사령관으로 발령받은 이종욱 대장(사진)은 작전 및 정보·전략 분야에서 진배가 굵은 전형적인 야전형, 국방정보본부장 재직시 군방정보지휘 체계를 성공적으로 통합, 군사정보 체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군 불교총신대회 회장이기도 하다. 1군 사령관으로 승진 발령된 김판규 대장은 항공작전사령부 초대사령관 재임시 전 조종사 야간 작전수행 자적 100% 목표를 달성



했다. 항공사상 최초로 헬기, 조종사 중 '탑 헬리콥터'를 선발, 항공 전력 운영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다. 육군에서는 김정일 조달본부2처장, 박정조 육본 지상자건사령부장 등이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에 보임됐으며 김대현 합참 군수부장은 임기제 전문직에 기용됐다. 이밖에 김무웅 해군 참모차장은 합참 인사군수본부장에 보임됐다. 김지연 기자



티벳 解脱의 書

'이몸 이대로' 해탈에 이른다!

보는 것만으로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티벳 최고의 경전! 1200년 전 티벳에 불교를 전한 위대한 스승 파드마삼바바의 <요약 전기>, 그가 가르친 <마음 알기 요가>, 또 다른 스승 파담파 상제가 남긴 <유언적 가르침>으로 구성된 이 경전은, 당신에게 '이몸 이대로' 해탈하는 법을 전해준다.

이상한 일이다. <티벳 해탈의 서>를 읽고 있으면 문득 주위가 밝아지는 느낌이다. 갑자기 해가 하나 떠 방 안을 환히 비추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빛은 외부에서 뿌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 영광(光)임이 분명하다. 칼 용은 이 책에서 '마음'을 '에너지의 변입기'라고 아주 격화한 표현을 하였다. 이 책은, 새벽 빛에 눈을 뜨고 일어난 사람들, 그리하여 지혜를 열망하는 사람들, 구도 여행에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지식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



정신세계사 | 전화 733-3135/팩스 739-8791/인터넷 홈페이지 www.mindvision.org | 주소 서울시 중구 회계동 171번지 원서빌딩/책방 정신세계 유통문점(02)737-8115, 대구점(053)943-4824, 광주점(031)742-7540, 대전점(042)489-9390, 부산점(051)294-8545, 안양점(034)466-2208 | 피드마삼바바 지음/에반스 원주/칼 용 해설/유기현 옮김 | 발행부수 432천/15,000원/서림에 있습니다



티벳 死者의 書

죽음을 알아야 삶이 보인다!

죽음의 순간에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해탈에 이른다는 티벳 최고의 경전! 사후세계 - 영혼의 행로 49일을 밝혀주는 천년의 경전.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환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영원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삶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책! 칼 용이 가장 차원 높은 정신의 과학이라 격찬한 죽음으로 삶을 가르친 궁극의 책, 명상의 기본서! 경전 전문에 풍부한 주해를 달고, 칼 용의 심리학적 해설을 비롯한 상세한 해제를 수록하여 원전의 진의를 완벽히 드러낸 국내 최초의 완역본 - 류시화의 우리말 번역으로 읽는 정신세계사의 <티벳 해탈의 서>.



정신세계사 | 류시화 옮김 | 발행부수 525천/15,000원/서림에 있습니다